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2(土)	13(日)
비온뒤 맑 15 / 18℃	구름조금 12 / 25℃

News

- 범여권 통합 급물살 ②
- KIA 최희섭 어제 귀국 ⑱

Jeollado

- 그 사람-국민가수 오기택 ⑦



Entertainment

- 여성MC 전성시대 ⑧
- 공포 영화가 몰려온다 ⑨

Wellbeing

- 식품 탐구-머위 ⑬



Trend & Style

- '맥아더 선글라스' 뜨다 ⑭

우암학원 창학 57년 역사와 전통

광주의 새로운 명문종합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 상담전화 (062)970-0114 ▶ T.(062)970-0011~9

세계로 앞서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c.ac.kr

▶ 상담전화 1588-5051 ▶ T.(061)360-5000

■ 29년 전 '전남대 교육지표' 사건 주역 교수들

“시련 컸지만 제자들 앞에 떳떳”

‘교수들이 독재권력에 집단적으로 항거한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로 평가되고 있는 1978년 ‘우리의 교육지표’ 사건. 사건 발생 30주년을 1년 앞두고 기념문집 발간과 조형물 건립 등 다양한 기념사업들이 추진되면서 그날의 주역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78년 6월 27일, 유신독재가 극에 달했던 살벌한 상황에서 전남대 교수 11명이 유신체제의 정신적 이적극 역할을 했던 ‘국민교육헌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우리의 교육지표’를 발표했다.

‘우리의 교육지표’가 발표된 이후 한국인권운동협의회, 천주교 전국교구사제단 등 지식인과 사회단체가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국내 언론이 주목을 지키는 동안 의신들이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해 전 세계에 전남대 교수들의 용기있는 행동을 알렸다. 이 사건은 79년 유신체제 종언과 80년 5·18항쟁으로 이어졌다. 평가를 받고 있다.

‘우리의 교육지표’에 서명한 전남대교수는 송기숙(국문학과), 명노근 김경수 배영남(영문학과), 김두진 홍승기(역사교육학과), 김현곤(불문학과), 이석연 이홍길(사

학과), 안진오(철학과), 이방기(법학과) 교수 등 11명이다.

송기숙 교수는 구속·수감됐으며 나머지는 전원 해직됐다. 항의 시위를 벌인 전남대·조선대생 18명도 구속됐다. 송기숙, 명노근, 이홍길 교수는 80년 5·18에 연루돼

송기숙씨 퇴직후 화순서 소설 집필 대학 연구·저술 활동·자택 요양도 명노근·이방기·배영남씨는 작고

구속되는 아픔을 겪었다. 이들 3명의 교수는 84년에야 교단으로 돌아왔다.

“솔직히 서명에 참가하는 것이 두려웠지요. 하지만 지식인으로서 바른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교육지표 선언에 참여했지요.” 이홍길 교수의 회고다.

주모자로 몰려 구속됐던 송기숙(73) 교수는 2000년 정년퇴직 후 2004년 문화도시조성위원장을 맡아 광주 문화수도사업을 2년 동안 총지휘했으며, 최근에는 화순

지역에서 소설 저작에 여념이 없다.

이홍길(67) 교수는 2004년 퇴직한 뒤, 구례에서 전원생활을 하다가 5월 단체회원들의 추대로 2006년부터 5·18기념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1명 중 나이가 가장 젊은 김두진(61) 교수는 80년 국민대로 옮겨 한국 고대 사상 분야에서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홍승기(61) 교수도 서강대로 옮긴 뒤 현재는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다.

이석연(71) 교수와 김현곤(73) 교수는 각각 정년 후 집에서 개인 저술과 자서전을 집필하고 있다.

김경수(73) 교수와 안진오(76) 교수는 자택에서 요양 중이다.

이밖에 이방기 교수가 지난 4일 지방으로 별세한 것을 비롯, 명노근, 배영남(2003년 작고) 교수 등 3명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명노근 교수는 5·18기념재단 이사과 광주YMCA 이사장직을 맡는 등 시민운동을 벌이다 2000년 1월 별세했다. 교육지표 사건 관련 교수들과 구속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사건발생일인 27일을 기념해 매달 한차례씩 자리를 갖고 있다.

/*최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1일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에서 열린 제52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 부문 현장 예선대회에 참가한 어린이들이 동심을 화폭에 담고 있다. 이 대회에는 학생·학부모 등 2천여명이 참가해 성황을 이뤘다. /고정석기자 ksjo@kwangju.co.kr

朴 ‘충격카드’ 나오나

측근들 “경선 불참 등 중대발표 가능성”... 姜대표 “사퇴” 배수진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대선 경선결과 관련, 강재섭 대표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경선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뒤 11일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합계에 들어갔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삼성동 자택에 머물며 정국구상을 한 뒤 이르면 14~15일 향후 정치적 행보와 관련한 중대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표측에서는 경선 불참을 포함한 충격적 내용의 입장 표명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 전 대표 캠프는 중재안을 놓고 위험공방과 함께 상대를 직접 겨냥해 책임공방을 벌였다. 특히 상임전국위(15일)와 전국위원회(21일)의 중재안 상정을 놓고도 치열한 당내·당구 논쟁을 벌이면서 한나라당의 분열위기도 고조되고 있다.

박 전 대표 측근은 이날 “경선 불참 중재안 차원을 넘어 큰 틀의 정치행보를 고민하는 것 같다. 경선상 아주 충격적인 정국 구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선 출마

를 공식 선언한 이 전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관문점을 방문해 대북정책 구상을 발표하는 등 박 전 대표측의 공세에 대해 ‘무대응’, ‘마이웨이’ 행보를 계속했다.

강재섭 대표도 이날 “내주 상임전국위원회까지 내 중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대선주자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표직은 물론, 국회의원직까지 사퇴하겠다”고 배수진을 쳤다. 한편 이날 100여명의 친 박근혜 성향의 당원들이 당사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하는 물리적 충돌까지 벌어졌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보복 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1일 오전 이뤄졌다.

김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이광만(45)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영장심사를 받았다. 영장심사에서 김 회장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주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심사를 마친 뒤 김 회장은 “국민께 송

구스럽다”면서 “저처럼 어리석은 아버지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며 후회의 심경을 내비쳤다.

김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친 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경찰 피의자 호송실에서 대기했다. 영장심사는 3시간 만에 끝났다.

한편 경찰은 현재까지 파악된 폭행 피해자 6명 외에 3명의 피해자들을 더 확인했다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春

회사일도 집안일도
춘곤증 앞에선 평등하다!

부작용이 없는 인공 합성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처방을 꼭 받으십시오. (02-390-1658 / www.aronamin.com) | 광고신청전화: 011-0000

건강100세를 실현하는
ILDONG 일동제약

봄철 피로-

활성비타민으로 풀고, 활력을 찾으세요

활성비타민은 일반비타민에 비해 흡수가 잘 되며, 신경조직에 침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체내 이용률이 높습니다. 아로나민에 들어 있는 활성비타민은 피로물질들을 분해해 잘 풀리지 않는 피로를 풀어주고, 에너지 대사를 촉진해 활력을 줍니다. 활성비타민의 효과를 직접 확인하십시오.

피로·눈의 피로·신경통·관절통에 - **아로나민 골드**
피로의 원인은 근육과 신경에 쌓인 피로물질 활성비타민 B1, B2, B6와 비타민 C·E가 피로물질을 분해해 피로를 풀어줍니다

피로·기미 주근깨·임신 수유기에 - **아로나민 씨플러스**
비타민 C·E, 아연, 셀레늄 등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항산화제를 보강하여 피로는 물론 여성의 피부건강에도 좋습니다

기미가 재발합니다!
항산화제 보강

- ▶ 비타민 C 1200mg
- ▶ 비타민 E 400IU
- ▶ 아연 18.68mg
- ▶ 셀레늄 500ug (1일 2회 복용시 기준)

▶ 300정, 150정, 100정

아로나민 골드 아로나민 씨플러스

■ 제품문의: 080-022-1010 (주선서비스) ■ www.aronamin.com